

# 노거수에 내재된 의미론적 특성에 관한 사례 연구<sup>†</sup>

-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당산목을 중심으로 -

김효정 · 허복수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 I. 서론

인간은 특정 사물이나 장소, 사건 등에 의미나 가치를 부여하는 행동을 한다. 이것은 이성을 지닌 인간의 특성, 상징화함으로써 새로운 의미를 도출해 내기도 하고 함축적으로 의미를 전달할 수 있기도 하다. 기호, 옛 그림, 현대회화, 전통문양 등도 이러한 의미전달의 수단으로 사용되었으며(홍형순, 2010; 천애경, 2002), 시대에 따른 사회적 관심의 변화나 종교, 지역에 따라 의미론적 특성은 재해석되고 변화하기 마련이다.

구석기 수렵사회에서 신석기로 접어들면서 농경 위주의 생활로 바뀌고, 식물이 주식이 되면서 농경문화와 함께 수목 등 식물 숭배사상이 발전했다고 볼 수 있다. 인간에게 있어 식물은 생명연장의 양식임과 동시에 열악한 대지 위에서 인간생존의 가능성을 가능케 하는 지표요, 초자연적인 절대자의 존재를 의식하게 하는 대상이기도 하였다. 인간들은 이러한 절대자인 신이나 정령 등이 자연물에 깃들고 인간의 생활에 간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생각하면서 자연숭배사상이 발달하게 된다(천애경, 2001).

자연숭배 사상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나타나는데, 숲이나 나무를 신성시하기 위한 도구로 유명한 인물이나 사건과 관련된 설화 등이 구전되기도 한다. 삼한 시대의 마한에 있던 소도라는 지역은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성지로 큰 나무를 세워 귀신을 모셨는데, 죄인이 이곳으로 도망가도 잡지 않았다. 숲 일대를 신성시하고 보호하던 형태는 지금도 남아 있는데, 성황림이 대표적인 경우로 원주 성남리의 성황림(천기 제93호)도 당집을 짓고 정기적으로 마을 주민들이 모여 제를 올린다. 숲은 신이 머무르는 공간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자연스레 신의공간인 숲은 잘 보존되어 왔다.

나무 가운데도 숭배를 하고, 신성시한 수목이 있는데, 이러한 것을 당산목 혹은 신목 등으로 부르고 있으며, 마을의 입구에 있어 경계의 표식이 되기도 하고, 지금까지도 마을에서 제를 올리며 각별히 보호하기도 한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노거수 가운데도 당산목으로 신성시하며,

제를 올리는 나무가 있다. 이러한 당산목은 작은 나뭇가지에도 신의 기운이 깃들어 있어 훼손할 경우 큰 해를 입는다고 믿어 떨어진 가지조차 손 대지 않는 등 일반 나무에 비하여 잘 보존되어 있다(김효정, 2009; 2010). 또한, 당산목뿐만 아니라 당산목이 분포하고 있는 일대까지도 확장하여 신성하게 생각함으로써 장소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이나 기억은 더욱 의미를 지니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역사 속에서 인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왔던 노거수에 내재된 의미론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당산목을 대상으로 하여, 내재된 의미성을 파악함으로써 그동안 다뤄진 생태적인 접근과는 차별적인 수목이 지닌 문화적 측면을 고찰하고자 한다.

## II. 연구의 배경 및 방법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첫째, 수목의 상징성에 대하여 예부터 전해오는 고서와 관련 논문 등을 통하여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 취급되는 당산목으로서의 수목의 제특성 및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당산목의 특성 및 사례접근을 통해 천연기념물 노거수로 지정된 당산목에 내재된 의미론적 특성을 살펴 보는데 기초자료를 구축하고자 한다.

## III. 결과 및 고찰

### 1. 수목의 상징성

동서양의 다양한 문화권에서 나타나고 있는 나무나 숲에 대한 상징적 의미는 수천년전부터 공통적으로 전해지고 있는 하나의 문화 현상이다(Frazer, 1994).

나무나 숲의 상징적 의미들은 우주나 세계를 창조하는 근원으로, 국가나 민족을 지키는 영웅이나 신으로, 가족이나 이웃을 보호하는 수호신으로 구체화되었고, 제배 작물의 다산, 자녀의

†: 본 연구는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의 2010 천연기념물 실태조사 연구과제로 수행되었음.

출산이나 영생을 기원하는 친근한 생명의 나무로 형상화되었다(Shore, 1989).

우주수나 세계수는 세계의 기둥, 인류의 발생지, 우주의 리듬을 상징하는데, 한국에서는 세계수를<sup>1)</sup> 부상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일본에서는 전설 속에 나오는 거대한 소나무가 세계의 중심 북쪽에서 자라고 있다고 묘사한다(Altman, 1994). 이집트의 경우 나무들이 신의 거처로, 특히 무화과나무에는 천국의 신인 너트와 헤더가 숨어 있다고 하여, 세계수로 등장한다(philpot, 1897)

심우경(1989)은 수목의 상징성에 대하여 형태적·생리적 특성과 종교적 영향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다고 분류하여 정의한 바 있다. 일례로 소나무의 경우 형태적 특성에서 잎은 상록성으로 짙게, 청렴을 상징하고 있으며, 생리적으로 수목의 생존기간은 오래 되므로 상징적 측면에서는 장수를 의미하고 있다. 또한 종교별 차이를 보면, 도교에서는 소나무가 장수를 의미하는 반면, 유교적 측면에서는 절개를 상징한다.

이처럼 수목의 상징성에 대한 다양한 해석은 국가별, 시대별, 종교별로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특성을 보인다.

## 2. 당산목으로서의 수목 특성 및 사례

당산목은 당산제를 지내기 위한 신목으로 당산목과 관련된 연구(류종목, 2007; 최덕원, 1993)에 의하면, 당산목으로 이용되는 수종으로는 느티나무, 팽나무, 소나무, 은행나무, 이팝나무, 버드나무 등 20여종 이상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수종은 분포학상 국내 어디서나 생육 가능한 것들로 소나무를 제외한 대다수가 낙엽성의 고목이고, 수형은 단정하고 수관의 폭이 넓은 특징을 지닌다. 당산목으로 이용되는 수목 중 가장 많이 나타나는 수종은 느티나무로, 생육 특성상 생존기간이 다른 수종에 비해 긴 특성을 지닌다. 괴목(槐木), 귀목(龜木), 포구나무 등으로 부르는데, 예부터 길한 나무로 귀신이 무서워하고 위엄이 있다. 정월초파일에 먹는 느티떡은 귀목의 연한 잎을 섞어서 찐 시루떡으로 이를 먹으면 무병장수한다고 전해진다. 또한, 느티나무로 만든 뒤주와 반닫이를 귀뒤주, 귀목 반닫이로 부르며 귀신을 쫓는 효험이 있으며, 부귀를 이뤄준다고 믿는다. 소나무는 예로부터 그림에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수목의 하나로(전영우, 2006) 우리 국민이 선호하였는데, 십장생(十長生)에 속하며, 장수(長壽), 지조(志操) 등을 상징한다. 고신라시대 고배의 마개에서부터 조선시대의 백자에 이르기까지 도자기나 궁(덕수궁 덕홍전, 경복궁 아미산의 보물 811호 굴뚝 등)에서도 문양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천애경, 2002). 은행나무는 행단(杏壇)으로도 불렸으며, 학문을 배우고 가르치는 장소인 서원, 향교 등에 많이 식재하였는데, 유학자를 상징한다.

당산목으로 이용된 수목의 수령은 100년에서 1,000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였는데, 실제로 300년 이상 400년 이하의 빈도가 가장 높았다. 당산목에 대한 명칭도 당산나무, 둥구나무, 성황당나무, 당산할아버지나무, 당산할머니나무 등 다양하게 나타났고, 일반적으로 독립수가 많았으나, 2주 혹은 그 이상의 나무가 있는 곳도 있었다. 제원에 관한 조사 결과 흉고둘레는 평균 3~4m가 가장 많았고, 수고는 최저 10m에서 최고 30m에 이르는 것도 있었다.

당산목과 마을 구조와의 상관 연구(최덕원, 1993)에 따르면, 당산목의 위치를 7곳으로 구분하였는데, 조사 결과, 마을의 입구에 분포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당산목의 경우 예로부터 내려오는 전설이나 주민이 직접 체험하였다는 일화가 많아 더욱 신성시하고 있었으며, 당산목에 지내는 행사(당산제, 동제 등)의 목적으로는 마을의 안녕과 평안 및 농사와 관련한 풍년기원이었다.

정읍지역 당산제 사례연구(박현국, 1995)에 의하면 전북 정읍시 산내면 예덕리 당산제의 경우, 마을의 중앙에 당산목이 위치하는데, 수종은 느티나무로 주민들은 귀목으로 부르고 있으며, 두 그루가 식재되어 있다. 마을의 중심에 위치하여 마을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전설 및 일화로는 당산목 인근의 노거수를 베어낸 후 집안에 우환이 생겼다고 하며, 당산제와 관련하여서도 마을 공동 금기(禁忌)를 철저히 이행하는 등 수목을 신성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전남 여천시 화정면 조발도 조발리에 소재한 소나무는 근원 둘레 3m, 수고 15m에 이르는데, 마을의 뒷산 당집옆에 분포하고 있는 당산목이다. 수령은 370여년으로 정월 대보름에 당제를 지내고 있으며, 군대에 간 마을 청년들의 희생이 없고, 당산나무가 보이는 바다까지 나가 조업하면 안전하다고 믿는다. 이러한 까닭에 당산목이 고사하여도 손 조차 대지 않는 금기가 있다. 이와 같이 당산목은 당산목과 관련된 전설이나 내력으로 이미 신성한 존재로 마을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마을에서의 입지상 중요한 존재로 여겨지고 있었다.

## 3. 천연기념물 당산목의 특성 및 사례

천연기념물 노거수 가운데 당산목으로 제례를 실시하고 있는 대상은 현재 60건으로 전체 천연기념물 관련 민속행사의 83%에 이른다. 당산목 가운데 출현빈도가 높은 수종으로는 느티나무가 13건, 소나무가 10건, 은행나무가 9건의 순으로 나타나, 당산목의 수종에 관한 출현빈도와도 유사한 분포를 나타내고 있었다. 천연기념물 노거수 지정 당시 추정수령을 분석한 결과, 가장 빈도가 높은 수령대는 500~699년(48%)으로 나타났으며, 차순으로 300~499년(27%), 700~899년(12%)으로 나타났다.

천연기념물 당산목 가운데 영풍 태장리 느티나무, 거창 당산

표 1. 천연기념물 당산목의 특성

지정명칭	지역	당산목 특성				행사내용		기타 특징
		수령	제원	수종	위치	행사일시	행사명	
영풍 태장리 느티나무 천연기념물 제247호	경북 영주	600	수고 18m 흉고둘레 8.7m	느티 나무	마을 입구	정월 대보름 (음. 1. 15)	태장리 동제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믿음
거창 당산리 당송 천연기념물 제410호	경남 거창	600	수고 14.3m 흉고둘레 4.1m	소나무	마을 입구	정월 대보름 (음. 1. 15)	영송제	나라에 큰일이 있으면 운다고 알려져 있음
영월 하송리 은행나무 천연기념물 제76호	강원 영월	1,100	수고 29m 흉고둘레 14.8m	은행 나무	마을 중앙	백중 (음. 7. 12)	하송리 동제	· 나라에 큰일이 있으면 운다고 알려져 있음 · 나무에서 떨어져도 아이가 다치지 않는다고 함

리 당송, 영월 하송리 은행나무 등 3곳을 선정하여 사례 조사를 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영풍 태장리 느티나무(천연기념물 제274호)의 경우 1982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는데, 당산목이면서도 정자목으로 마을 주민들이 이용한다. 느티나무는 낙엽성 교목으로 수형이 부드럽고, 수관이 넓어 휴식의 장소로도 많이 이용된다.

거창 당산리 당송(천연기념물 제410호)은 수령 600년, 수고 14.4m, 흉고둘레 4.1m에 이른다. 마을의 입구에 분포하고 있으며, 1910년의 한일합방 및 1945년의 해방과 1950년 6·25 동란 등 국가의 번고가 있기 전마다 며칠간 나무가 웅~ 소리를 내며 울었다고 전해진다.

강원 영월군 하송리에 소재한 은행나무(천연기념물 제76호)는 본래 선달 그림과 백중(음력 7.15)에 동제를 지냈는데, 최근 몇 년전부터는 음력 7월 12일로 정하여 1년에 1회만 지내고 있다. 유두와 백중 무렵의 동제가 농작물이 한창 성장하는 시기로 성장을 기원하기 위한 목적이 내포되어 있다(류종목, 2007). 영월 하송리 은행나무 동제의 경우는 바쁜 농번기를 보내기도 했으나, 추수를 앞두고 잠시 쉴 수 있는 시기로 농작물 성장의 기원과 함께 채충전의 시간이자 친목 도모의 기회라고 볼 수 있다. 영월 하송리 은행나무 당산목의 몇가지 특성을 요약하면 첫째, 제원에서 거수(巨樹)로 일반 수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수고가 높다. 둘째, 하송리 은행나무 일대를 행정마을이라 부르고 분포 위치도 마을의 중앙인 점을 감안할 때 은행나무가 마을의 중심점 역할을 하며 매우 중요한 존재로 여겨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하송리 은행나무 당산목과 관련된 전설이 많고, 국가적으로 큰 사건과 연관된 일이 많았는데, 이러한 것은 나무가 영험하다고 믿는 속성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 4. 천연기념물 당산목에 내재된 의미론적 특성

수목은 오랜 기간동안 생존하는 생명체로 최초의 심겨진 그 자리에 직접하여 주변 사람들의 회노애락을 지켜본 살아 있는 장본인이며, 마을사람들에게 정신적 위안과 녹음을 제공해 주는 기본적인 기능 이외에도 동양적 사상에 입각한 민간신앙적 요소

가 부각되면서 신격화되기도 하였다. 어쩌면 오래된 역사적 사건이나 마을의 내력등 정체성을 대변해 주는 유일한 증거인 셈이다. 마을의 공동체유지 차원에서 세대를 거쳐 죽지 않고 살아있는 큰어른이라고 할 수 있다. 나무의 오랜 생육은 그 마을의 환경과 생태적 안정성에 대한 증표이기도 하다. 또한 당산목은 제를 지내고 문장을 짓고 하는 등 문화적인 측면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 문화의 전승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일이다. 또한, 옛 사람들은 주변의 꽃과 나무들에게 각기 고유 의미, 품(品)과 격(格)을 부여하고 이를 완성하는 전통을 이어왔으며(홍형순, 2010), 삼국사기(三國史記)와 삼국유사(三國遺事)에 기록된 식재 수목 및 유박의 화목구등품제, 화품평론을 통해서도 쉽게 알 수 있다.

#### IV. 결론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노거수 가운데 당산목을 대상으로 하여 내재된 의미론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목의 특성은 대부분이 낙엽성이고 교목으로 수종별로는 느티나무가 제일 많았다. 또한 수령은 500년 이상, 제원은 수고 10m 이상, 흉고둘레 4m 이상으로 나타나 제원적 측면뿐 아니라 형태적으로 당산목이 일반 수목에 비하여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당산목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제례 등의 일체 행사는 마을의 안녕과 평안, 풍요를 기원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다. 이렇듯 수목의 신격화(神格化)는 사상적 측면에서 볼 때 신이나 정령이 자연물에 깃들여 있다는 자연숭배사상에서 유래된 것으로 우리의 민간신앙과도 관련이 있으며, 생명을 잉태하고, 우주의 만물과 연결되는 생명수나 우주수와도 일맥 상통한다.

셋째, 당산목에는 전설과 사건이 많았으며, 이는 사실의 여부를 떠나 당산목이 영험하다고 믿거나 믿고 싶은 바람으로 볼 수 있으며, 당산목의 보존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본 연구의 의의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당산목이 지닌 의미론적 특성을 연구하는 초기단계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이 소수라는 한계점이 있으나, 보다 다양한 사례 연구를 통해 특성에 대한 체계적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 1. 부상이란 나뭇가지에 10개의 태양을 걸 수 있으며, 수고는 300리에 달하고 둘레가 2,000여 아름에 달하는 거대한 신화적인 나무를 일컬음(박봉우, 1994).

### 인용문헌

1. 김효정. 2009. 인지도 분석으로 나타나는 당산목의 마을내 영향권역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 춘계학술발표 논문집. 114-119.
2. 김효정. 2010. 자연유산 민속행사의 문화콘텐츠 자원화. 한국전통조경학회 춘계학술발표 논문집. 102-110
3. 류종목, 2007. 동제의 전승양상과 전승의식, 한국민속학 46권, 169-205
4. 박봉우. 1994. 삼국유사에 나오는 나무이야기. 숲과 문화 17호. 숲과문화 연구회.

5. 박현국. 1995. 정읍 지역 당산제 고찰. 한국민속학 27권 1호 161-201
6. 배상선, 심우경. 1989. 조경식물의 상징성에 관한 기초연구. 전통조경학회지 2권 8호. 281-313
7. 전영우, 2006. 숲과 문화. 북스힐
8. 천애경, 2002. 한국 전통문양에 나타난 조형성과 상징성 연구.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9. 최덕원. 1993. 당산목과 마을 구조와의 상관 연구, 한국민속학 25권 1호, 427-508
10. 홍형순, 2010. 그림 속 식물요소를 통해 본 독서여가도의 의미, 전통조경학회지 28권 2호. 1-8
11. Altman, N. 1994. Sacred trees. 1994. Sierra Club Books, San Francisco
12. Frazer, J. G. 1994. The golden bough; A new abridgement. Oxford Univ. Press. London
13. philpot, J. H. 1897. The sacred tree : the tree in religion and myth. Macmillan and Co., New York
14. Shore, E. 1989. The tree at the heart of the garden. Parabola 14(3):38-43.